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September 2024 Issue | Vol. 66

SPECIAL POINTS OF INTEREST

- 분석가들,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 전망 개선 예상 —page 1-2
- 필리핀, 전자 여행 시스템을 종이 없는 공항의 핵심으로 검토 중 —page 3
- 높은 민간 소비가 필리핀 경제 성장에 핵심—S&P —page 3-4
- 인플레이션, 8월에 3.3%로 하락 — page 4-6
- ADB, 필리핀을 위한 새로운 국가 파트너십 전략 발표 — page 6-7
- ADB, 필리핀을 위한 새로운 국가 파트너십 전략 발표 — page 7-8
- 다음 설탕 작물은 수확량 저조로 인해 전량 국내 시장에 예약 — page 8

분석가들,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 전망 개선 예상

September 04, 2024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낮은 금리가 필리핀으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와 포트폴리오 투자(FPI)의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분석가들이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및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FPI) 전망은 밝아 보이며,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필리핀은 방코 센트럴 응 필리피나스(BSP)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잠재적으로 초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큐리티뱅크 코퍼레이션의 수석 경제학자 로버트 단 제이 로세스는 비버 메시지에서 말했습니다.

BSP는 올해 외국인 직접 투자(FDI) 순유입이 9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FPI)의 경우 연말까지 31억 달러의 순유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BSP의 예측은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연간 FDI 유입 규모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타한 해를 제외하면 필리핀에 들어오는 FDI 수준이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니다."라고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신희 아시아 수석 경제학자 미구엘 찬코는 이메일에서 말했습니다.

BSP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 동안 FDI 순유입은 전년 대비 15.8% 증가한 40억 2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Office and residential buildings are seen in this file photo dated Aug. 17, 2024. — PHILIPPINE STAR/MIGUEL DE GUZMAN

한편, 단기 외국인 투자는 1월부터 7월까지 14억 6천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1억 5천 7백 3십만 달러의 순유입에서 급증한 수치입니다.

FDI는 장기 투자로 간주되는 반면, 포트폴리오 투자 또는 '핫머니'는 이러한 자금이 경제에 쉽게 진입하고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큰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니언뱅크 오브 더 필리핀의 수석 경제학자 루벤 카를로 오. 아순시온은 금리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BSP의 투자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매력적인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반적으로 주요 금리가 하락할 것이므로, 현재 합리적인 투자를 제공하면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단 제이 로세스는 "올해와 내년의 추가적인 정책 금리 인하는 특히 FDI를 위한 투자 활동을 촉진할 것이며, 차입 비용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월 회의에서 통화위원회는 거의 4년 만에,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차입 비용을 25bp(베이스스 포인트) 인하하여 기준 금리를 기준 17년 최고치인 6.5%에서 6.25%로 낮췄습니다.

중앙은행은 4분기에도 25bp의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BSP 총재 엘리 M. 레몰로나 주니어는 말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말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nt. page 2]

분석가들,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 전망 개선 예상

[Cont. from page 1]

리잘 커머셜 뱅킹 코퍼레이션의 수석 경제학자 마이클 L. 리카포트는 비버 메시지에서 "FDI와 FPI에 가장 큰 촉매제는 연방준비제도의 예상되는 일련의 금리 인하로, 이는 국내에서도 일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 무역 및 기타 경제 활동이 개선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차입 비용 감소 외에도 국가의 강력한 거시경제 지표가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단 제이 로세스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동력은 지속적인 경제 기초, 정치적 안정, 개선된 규제 환경, 진행 중인 인프라 개발, 그리고 BPO(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및 제조업과 같은 부문의 국가 경쟁 우위"라고 말했습니다.

루벤 카를로 오. 아순시온은 필리핀의 긍정적인 경제 성장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필리핀에 투자할 실질적인 기회를 본다면, 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경제는 2분기에 6.3% 성장했으며, 이는 2023년 1분기의 6.4% 이후 5분기 만에 가장 빠른 성장률입니다.

한편,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 레오나르도 A. 란조나 주니어는 낮은 차입 비용이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를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메일에서 "BSP의 저금리는 경제 활동을 자극할 수 있지만, 이는 차입이 저렴해짐에 따라 단기 투자만 촉진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기 프로젝트의 수익이 위험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는 장기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미구엘 찬코는 또한 필리핀의 '정책 정체'를 언급하며, 이 투자 전망에 대한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필리핀의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들과 최대 경쟁국들은 더 개방된 무역 국경과 더 나은 비즈니스 인프라 환경을 추구하는 데 매우 공격적입니다. 반면, 필리핀은 여전히 이러한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레오나르도 A. 란조나 주니어는 정부의 정책이 단기 투자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세금 감면이나 경기 부양책과 같은 즉각적인 지출이나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이나 인센티브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 투자를 촉진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에는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이클 리카포트는 추가적인 지정학적 위험이 없다면 투자 목표는 여전히 달성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로버트 단 제이 로세스는 "그러나 글로벌 경제 상황과 환율 안정성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의 긍정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국내 정책 변화와 같은 위험이 이 예측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리카포트는 또한 필리핀의 신용 등급 전망이 개선됨에 따라 국제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의 신뢰를 높여 외국인 투자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에 본사를 둔 **Rating and Investment Information, Inc.**는 지난달 필리핀의 투자 등급을 "A-"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필리핀은 또한 일본 신용 평가 기관으로부터 "A-" 등급을 받았지만, "빅 3" 신용 평가 기관으로부터 "A" 등급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무디스로부터 "Baa2" 등급, 피치로부터 "BBB" 등급, S&P 글로벌로부터 "BBB+"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르코스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A" 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9/04/617915/analysts-see-improving-foreign-investment-outlook-for-phl/>

필리핀, 전자 여행 시스템을 종이 없는 공항의 핵심으로 검토 중

September 03, 2024 | Lorenz S. Marasigan | BusinessMirror



필리핀 정부는 전자 여행 시스템(eTravel)을 활용하여 완전히 '종이 없는 공항'을 구현하고 공항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월요일 BusinessMirror와의 인터뷰에서 정보통신기술부(DICT)의 데이비드 알미롤은 2022년에 단일 구성 요소로 도입된 eTravel 시스템이 현재 8개의 다른 여행 프로세스를 추가하여 공항에서 필요한 작업을

“과거에는 여행객들이 도착 및 출발 카드, 세관 및 통화 신고서, 건강 및 관광 양식 등 여러 양식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덟 개의 별도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알미롤은 설명했습니다. “이제 eTravel을 통해 이러한 모든 양식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승객의 여권이 스캔되는 즉시 대부분의 과정을 자동화했습니다.”

알미롤에 따르면, eTravel 시스템의 도입으로 공항에서의 처리 시간이 승객 한 명당 최대 30초 단축되었으며, 시스템이 추가로 개선됨에 따라 효율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정적인 연구는 아직 없지만, 초기 평가 결과 시스템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여행객과 공항 직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언급했습니다.

eTravel 시스템은 처음 도입될 때는 이민 과정만을 다루었으나, 올해에는 세관부터 건강 신고까지 포함하는 일곱 개의 추가 시스템을 통합하여 확장되었습니다.

이 통합은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종이 없는 국경 통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모범 사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공항이 종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종이 없는 공항을 보유한 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eTravel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의 민감한 특성을 고려하여, 알미롤은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프로토콜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DICT는 사이버 보안을 염두에 두고 eTravel을 설계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다중 인증을 포함한 여러 보안 계층을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알미롤은 여행객들이 악성 소프트웨어와 키로거를 피하기 위해 eTravel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대개는 우리가 사용하는 장치가 이러한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정부는 eTravel 앱에 더 많은 여행 관련 서비스를 통합할 계획입니다.

알미롤은 DICT가 현재 해외 필리핀인 위원회(CFO)와 협의하여 eVisa 프로세스를 eTravel 시스템에 통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합의 목적은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 특히 장기 체류나 필리핀 시민과의 결혼을 위해 도착하는 이들의 경험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eVisa가 eTravel 플랫폼 내에 통합되면, 여행객들은 이민 과정에서 추가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여권 스캔 시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전자적으로 처리됩니다.

***“우리는 정부 내에서 더 많은 효율성을 창출하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더 나은 여행 경험을 할 수 있도록 eTravel 시스템을 더 향상시킬 것입니다.”**”라고 알미롤은 말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9/03/phl-eyeing-e-travel-system-as-key-to-paperless-airport/](https://businessmirror.com.ph/2024/09/03/phl-eyeing-e-travel-system-as-key-to-paperless-airport/)

높은 민간 소비가 필리핀 경제 성장에 핵심—S&P

September 04, 2024 | Niña Myka Pauline Arceo | The Manila Times

필리핀 정부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소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S&P 글로벌 등급 평가가 밝혔습니다.

The Manila Times®

이 채권 감시 기관은 필리핀의 성장 전망을 2024년 5.8%와 2025년 6.1%로 유지했으며, 이는 정부의 6.07.0%와 6.57.5% 목표를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상반기 성장률이 전년 대비 6.0%였기 때문에 우리의 전망에는 일부 상향 리스크가 있습니다.”**”라고 S&P의 경제학자 비슈르트 라나는 화요일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Cont. page 4]

높은 민간 소비가 필리핀 경제 성장에 핵심—S&P

[Cont. from page 3]

***“그래서 남은 올해의 주요 변수는 민간 소비가 회복될지 아니면 여전히 다소 약할지 여부이며, 이것이 결국 경제가 6.0%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라나는 개선이 주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국내 수요와 향후 통화 정책의 정상화”에 기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분기에 예상보다 높은 6.3%로 확장되어 누적 성장률이 6.0%에 도달했습니다.

정부의 상품, 서비스 및 자본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이 가계 소비 약화와 높은 인플레이션 및 금리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난달 **방코 센트럴 응 필리피나스(BSP)**는 정책 금리를 17년 만에 최고치인 6.5%에서 6.25%로 25bp 인하하여 경제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라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가 올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통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급격하게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BSP 총재 엘리 레몰로나 주니어는 중앙은행이 올해 한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기구인 통화위원회는 2024년에 두 번의 회의만 남아 있으며, 10월 17일과 12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인플레이션이 4.4%로 BSP의 2.0~4.0% 목표 범위를 처음으로 초과했지만, 라나는 S&P가 “올해 필리핀에서 큰 인플레이션 압력을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은 2024년의 위험 조정 예측을 3.1%에서 3.3%로 상향 조정했으며, 2025년 예측은 3.1%에서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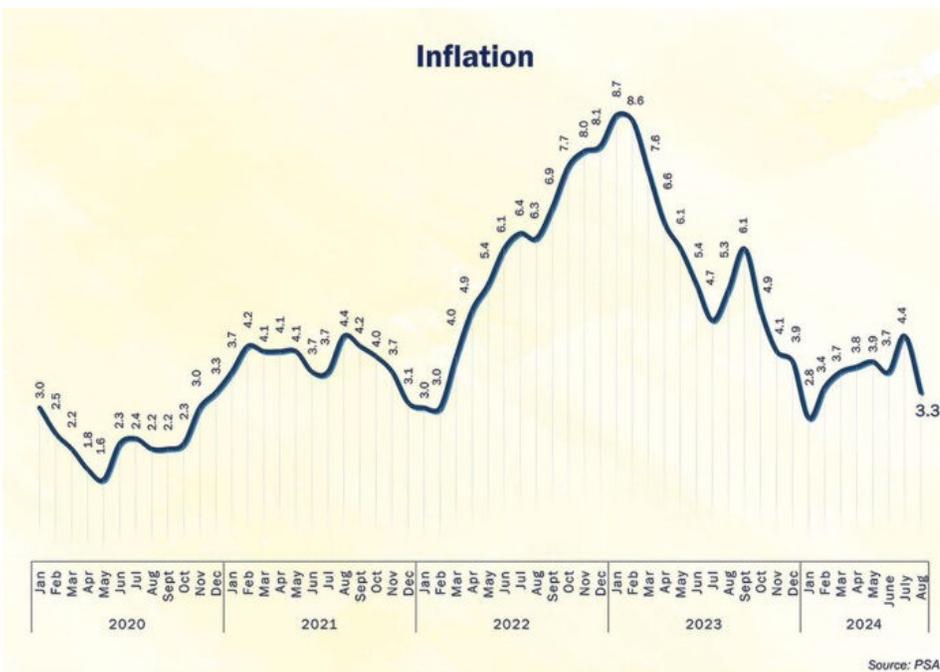
올해의 기준 예측은 3.3%에서 3.4%로 상향 조정되었고, 2025년의 기준 예측은 3.2%에서 3.1%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한편, 2026년의 위험 조정 및 기준 예측은 각각 3.3%와 3.2%로 설정되었습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4/09/04/business/top-business/higher-private-consumption-key-to-better-ph-growth-sp/1968857>

인플레이션, 8월에 3.3%로 하락

September 06, 2024 | Jimmy Calapati | Malaya Business Insight



식품 및 비알콜 음료의 가격 상승 둔화로 인해 8월 인플레이션이 이전 달 4.4%에서 3.3%로 1%포인트 이상 하락했다고 필리핀 통계청의 데이터가 보여주었습니다.

8월의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연초부터의 국가 평균 인플레이션은 3.6%에 이르며, 이는 정부의 연간 목표 범위인 2%에서 4% 사이에 해당합니다.

클레어 데니스 마파 국가 통계청장 겸 시민 등록 총장은 전체 인플레이션의 하락세는 주로 식품 및 비알콜 음료의 연간 증가율이 이전 달의 6.4%에서 8월에는 3.9%로 둔화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통 부문도 7월의 연간 증가율 3.6%에서 8월에는 연간 0.2% 감소로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하락에 기여했습니다.

[Cont. page 5]

인플레이션, 8월에 3.3%로 하락

[Cont. from page 4]

다음 상품군의 지수에서 연간 증가율이 낮아진 것도 관찰되었습니다: 알콜 음료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가구, 가정용 기기 및 일상적인 가정 유지보수; 건강; 오락, 스포츠 및 문화; 교육 서비스; 식당 및 숙박 서비스; 개인 관리 및 기타 용품 및 서비스.

한편, 주택, 수도,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의 지수는 7월 2.3%에서 8월에 3.8%로 더 높은 연간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Mapa는 "8월의 식품 인플레이션 둔화는 주로 쌀의 인플레이션 속도가 20.9%에서 14.7%로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뒤를 이어 채소, 뿌리채소, 플랜테인, 조리 바나나 및 콩류가 7월의 6.1% 연간 증가에서 4.3% 감소로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생선 및 기타 해산물, 설탕, 제과 및 디저트의 지수에서 더 빠른 연간 감소가 관찰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Mapa는 "식품 인플레이션은 2024년 8월 전체 인플레이션의 42.7% 또는 1.4%포인트를 차지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수준의 추세를 따르면서, 수도권(NCR)의 인플레이션율도 7월 3.7%에서 2.3%로 둔화되었으며, 이는 주로 중량이 큰 식품 및 비알콜 음료의 연간 증가율이 느려진 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운송 지수에서 관찰된 연간 감소가 하락세에 기여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인플레이션율도 식품 및 비알콜 음료 지수의 연간 증가율이 느려짐에 따라 7월의 4.6%에서 8월에 3.6%로 둔화되었습니다.

Mapa는 수도권 외 지역의 15개 지역에서 낮은 인플레이션율이 나타났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로코스 지역은 8개월 연속으로 1.8%의 최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했으며, 다바오 지역은 4.9%의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

엘리 레몰로나 주니어(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돌아가는 것이 "BSP의 최근 평가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7월에 일시적인 상승이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부정적인 기저 효과와 주요 식품 품목, 특히 쌀의 공급 압력이 완화된 결과입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위험 균형은 2024년과 2025년에 하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2026년에는 약간의 상향 기울기가 있습니다. 하향 위험은 주로 쌀의 낮은 수입 관세와 관련이 있으며, 상향 위험은 높은 전기 요금과 외부 요인에서 올 수 있습니다."라고 레몰로나는 말했습니다.

"통화위원회는 경제와 고용의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계속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통화위원회는 지난달 BSP의 목표 역레포(RRP)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회의에서 추가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현재 RRP 금리는 6.25%입니다. 이에 따라, 하룻밤 예치금과 대출 시설의 금리는 각각 5.75%와 6.75%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세안(ASEAN) HSBC 경제학자인 아리스 다카나이는 BSP가 12월에만 금리 인하 사이클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10월에는 금리 동결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는 BSP가 4분기에 25bp만 인하하여 6%로 조정하는 것이며, 이는 총재가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에서 시사한 바입니다.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연내 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훨씬 느리게 나타나는 것은 점진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우리의 전망에 하향 위험을 미치고 있습니다."라고 다카나이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장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2024년 3분기 GDP(국내총생산) 데이터가 BSP가 통화 정책을 얼마나 빠르게 완화할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라고 계속 믿고 있습니다. GDP 데이터는 10월 통화위원회 회의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므로, BSP는 2024년에는 단 한 번의 25bp 금리 인하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다카나이는 덧붙였습니다.

지출 증가

국가경제개발청(NEDA) 장관 아르세니오 발리사칸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되고 가격이 안정되면 가계와 기업에 큰 혜택이 될 것이며, 이는 소비자 지출을 증가시키고 경제 활동을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nt. page 6]

인플레이션, 8월에 3.3%로 하락

[Cont. from page 5]

발리사칸 장관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완화는 가계 소비 증가를 지원할 것이며, 높은 가격이 오랫동안 억제해 온 소비를 촉진할 것입니다. 저소득 가계는 식품 인플레이션 감소로 혜택을 받을 것이며, 식품이 하위 30% 가계의 소비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리사칸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로 쌀 수입 관세 인하로 인해, 높은 전기 요금과 비정상적인 날씨 장애가 잠재적인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압력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니냐 현상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며, 조기 경보 시스템 개선, 댐 개방에 대한 경고 발송을 위한 통신 시스템 활용, 가축 질병의 잠재적 확산 속도에 대한 대응 조치, 정보 전파에 대한 지방 정부의 더 큰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정부는 2024년 국가 리스크 감소를 위해 150억 페소를 배정했습니다.”라고 발리사칸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재무장관 라프 렉토는 8월의 느린 인플레이션율이 정부의 식품 가격 안정화에 대한 목표 지향적 개입의 효과를 보여주며,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유지함으로써 하향 모멘텀을 지속할 것이라고 대중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정부 대응

마르코스 대통령은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표현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정부가 저렴한 식품 제품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카디와 응 팡울로”(Kadiwa ng Pangulo) 프로그램을 비사야스와 민다나오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의 통제된 배포를 지속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돼지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https://malaya.com.ph/news_business/inflation-retreats-to-3-3-in-aug/

DOE identifies 31 ports for offshore wind development

September 06, 2024 | Lenic Lectura | BusinessMirror

THE Department of Energy (DOE) has identified 31 ports nationwide that could be redeveloped to cater to the booming offshore wind (OSW) industry.

Of the 31 ports being considered, 15 have been identified as “potential ports with support” by the DOE. Simply put, funding for the technical feasibility studies for these 15 ports is already assured.

Of the 15, seven ports (SBMA, PNOC-ESB, Culasi, Iloilo, Irene, Bauan International, and San Carlos) have secured technical assistance from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The ports of Currimao, Capinpin, Batangas, San Juan, and Lavezares could be supported by the Economic Development Group (EDG).

Meanwhile, the Bulalacao, Tabaco, and Pulupandan ports are likely to be supported by both the ADB and EDG.

The other ports being considered are Hanjin Shipyard, Wawa, Calatagan, Calaca, Caticlan, Banago, BREDCO, Aparri, Dingalan, Lucena, Legazpi, Allen, Cebu International, Dumaguete, and Dapitan.

“Building Port Infrastructure” is among the DOE’s four-point strategy for Energy Transition. The other three are acceleration of renewable energy (RE) projects, development of a smart and green transmission grid plan, and voluntary early decommissioning of coal power plants. [Cont. page 7]



DOE identifies 31 ports for offshore wind development

[Cont. from page 6]

As of August 15, the DOE has awarded a total of 92 OSW energy service contracts with a potential capacity 66.1 gigawatt hours (GWh). Four of these OSW contracts were awarded to 100 foreign-owned companies. OSW is the only renewable energy with its own Executive Order which directs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y and administrative framework for OSW development.

The Philippines has immense OSW potential, with the World Bank estimating over 178 GWs of technical offshore wind potential in the country. With a rapidly rising energy demand and goals to increase RE shares to 50 percent in the country's energy mix by 2040, OSW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energy security and decarbonization efforts in the Philippines.

Building up the country's offshore wind market can also support the growth of many socioeconomic benefits including job creation, local economic growth, and low-cost sustainable energy, the World Bank said earlier.

The DOE is pushing for a clean energy scenario (CES) to meet 35 percent of RE share in the power generation mix by 2030 and 50 percent by 2050.

Based on the updated Philippine Energy Plan, which covers the period 2023 to 2050, there are two CSEs drafted.

CSE1 involves high RE with low OSW, plus nuclear, plus coal repurposing, which targets at least 50 percent RE share by 2040 and more than 50 percent by 2050. It also incorporates capacities from nuclear, 1,200MW by 2032, additional 1,200MW by 2035 and another 2,400MW by 2050. Furthermore, it also considers 19GW capacity from OSW and the repurposing of coal facilities.

CSE2 or the high RE with high OSW, plus nuclear, plus coal repurposing, aims to surpass a 50 percent RE share between 2040 and 2050, including nuclear capacities—1,200MW by 2030, additional 1,200MW by 2035, and another 2,400MW by 2050. In addition, this scenario outlines significant expansions for a 50GW increase in OSW capacity, as well as strategic initiatives for repurposing coal facilities.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9/06/doe-identifies-31-ports-for-offshore-wind-development/>

ADB, 필리핀을 위한 새로운 국가 파트너십 전략 발표

September 06, 2024 | Niña Myka Pauline Arceo | The Manila Times

The Manila Times

아시아 개발 은행(ADB)은 목요일에 필리핀을 위한 국가 파트너십 전략(CPS)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약 240억 달러의 정부 대출을 포함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지속적이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9년까지의 6개년 계획은 인적 개발, 경제 경쟁력, 질 높은 인프라, 자연 기반 개발, 재난 회복력에 중점을 두며, 디지털 혁신, 성평등 및 강력한 거버넌스도 추진할 것입니다.

ADB 필리핀 국가 이사 파뎀 라마찬드란은 필리핀이 상위 중소득 국가가 될 길을 걷고 있지만, 강력한 성장의 혜택이 모든 필리핀 국민,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도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장 모멘텀이 탈선하지 않도록 개발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높은 취약성, 특히 가장 가난한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지속적인 빈곤 및 소득 불평등 문제를 긴급히 해결해야 합니다.”라며 이 전략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DB가 지난해 정부 및 비정부 지원으로 45억 달러를 제공했으며, 새로운 CPS 하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연간 재정 지원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ADB는 필리핀이 일반 자본 자원을 통한 정기 시장 기반 대출 자격을 갖추었으며, 중기적인 정부 대출 총액이 2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강력한 정부 수요와 OCR 가용성에 따라 증가할 수 있으며, ADB는 또한 한도와 부채 스트레스 위험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 금액은 정부와의 연례 검토를 통해 조정될 수 있는 예시 금액입니다.”라고 라마찬드란은 말했습니다. [Cont. page 8]

ADB, 필리핀을 위한 새로운 국가 파트너십 전략 발표

[Cont. from page 7]

“우리의 지원에는 인프라 준비 및 혁신 기금을 통한 정부의 대형 투자에 대한 프로젝트 준비 및 타당성 조사와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위한 거래 자문 서비스가 포함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ADB는 대출 및 보조금의 비용 분담을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최대 99%로 설정할 것이며, 구체적인 조정 사항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이 성장 경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라마찬드란은 새로운 전략이 저소득 가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성장을 촉진하며, 청정 에너지, 블루 경제 및 자연 기반 투자와 같은 신흥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DB는 지역 사회, 정부 기관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프라 격차와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DB는 기후 행동을 국가 내 모든 참여 및 투자 계획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라마찬드란은 말했습니다.

“새로운 CPS 하에서 ADB는 정책 및 규제 개혁 지원, 시장 및 투자 파이프라인 강화, 자금 조달 가용성 확대를 통해 민간 부문 주도의 개발을 촉진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4/09/06/business/top-business/adb-launches-new-country-partnership-strategy-for-ph/1969398>

다음 설탕 작물은 수확량 저조로 인해 전량 국내 시장에 예약

September 04, 2024 | Adrian H. Halili | BusinessWorld

“설탕 규제청(SRA)은 생산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전체 수입 설탕 작물을 국내용으로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안 설탕 명령서에 따르면, 규제 기관은 다가오는 작물 연도의 모든 설탕이 'B' 등급으로 분류되어 국내용으로 예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5월까지 심어진 작물에 대한 엘니뇨의 영향에 기반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느끼며, 그 후에는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SRA 관리자 파블로 루이스 S. 아즈코나가 수요일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SRA의 초기 추정에 따르면, 원당 생산량은 2024-2025 작물 연도에 178만 미터 톤(MMT)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23-2024 작물 연도의 실제 생산량인 192만 MMT에 비해 낮은 수치입니다.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동안 사탕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42.3% 감소하여 163만 MMT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설탕이 해당 기간 동안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단일 작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추정치와 실제 보유량, 도착 예정인 수입량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공급은 아마도 밀링이 끝날 때까지... 2025년 5월 또는 6월까지 충분할 것입니다.”라고 아즈코나 씨는 덧붙였습니다.

이전에 규제 기관은 최대 24만 MMT의 정제 설탕 수입을 승인했습니다. 약 17만 6천 MMT는 밀링 비시즌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부족을 채우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공공에게는 우리의 설탕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장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수입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은 균형 잡히고 조정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수입 설탕이 다음 주부터 도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을 요청받은 필리핀 설탕 생산자 연합(United Sugar Producers Federation of the Philippines) 회장 마누엘 R. 라마타는 승인된 설탕 수입량이 생산 부족분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악화된 엘니뇨 때문에 생산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공급 측면에서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SRA는 20만 톤 이상의 정제 설탕 수입을 승인하여 부족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했습니다.”라고 라마타 씨는 Viber를 통해 말했습니다.

SRA의 8월 4일 기준 원당 재고는 22만 7천 779 MMT, 정제 설탕 재고는 48만 7천 268 MMT로 추정됩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09/04/618399/next-sugar-crop-reserved-entirely-for-domestic-market-due-to-weak-harvest/>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LOTTE



Lotte Corporation is the largest shareholder of Pepsi Cola Products Philippines Inc.